광주 AI·전남 에너지벨트 진짜 대한민국 성장 전략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공약 반영 향후 국정과제 포함 가능성 높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광주·전남 인공지능(AI), 서남해안 에너지벨트 등 핵심 공약이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광주·전남 핵심 과제가 포함 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5극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을 호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고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호남권인 서남권에는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분류됐다.

서남권의 재생에너지발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남권을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추가로 32GW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것이다. 또 모빌리티, AI-X 융복합산업 등을 위한 미래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래형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남권 주요 지역공약으로는 AI와 미래 모빌리티, 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조성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재확인했다. 여수, 광양, 군산은 기존 제조업의 재도약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약도 들어갔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완성형 생태계로 구축하고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안·고흥·여수 일대의 주민들과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하고 나주 AI 농업 지구 등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산, 가공, 수출이 연결되는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 구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한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다만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 물리적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된 AI 인프라 ('AI 고속도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의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도 고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생산설비와 제조업 기반은 남부지역에 분포돼 있고 행정과 과학기술단지는 중부지역, 주요 기업의 본사·인력·금융은 수도 권에 집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된 AI 인프라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와 산업 활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Mega-AI 집적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별 AI+X 센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프라 개념인 'AI 고속도로'를 조성해 이를 잇는 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호남정치 복원"

박지원 의원 등 11명 모여 새 정부 호남 역할 등 모색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원내지도부에 이 지역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 이들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하고 대선 이후 국회 운영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만남인데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한데 모였다는 데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임은 호남 정치권의 좌장이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 선대위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활약한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지역 후배 정치인들을 격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모임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정준호(북구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김원이(목포)·조계원(여수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과 목포 출신 서미화(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이 투표율과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1~2위를 이끈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서로 격려하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진도·해남·완도)의원과 정진욱(광주 동남을)의원이 지난 대선기간 광주시 동구 푸른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1~2위
새 정부 성공 국정운영 뒷받침
지역 인사·현안·예산 지원 등
협력위해 정기적 모임 갖기로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은 "과거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김대중 정부의 성공을 이끌었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 호남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호남의 역할 뿐 아니라 호남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당선에 호남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에서 호남이 배려될 수 있도록 호남 국회의원들이 단결해서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이번 정부에서 지역 발전과 인재 발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런 모임을 상시화 해서 힘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도 호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또 최근 문금주 의원이 원내대변인, 김문수·권향엽·전진숙(북구을)·조인철(서구갑)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인선돼 호남 정치권의 당내 입지도까지 높아지면서 이날 회동 분위기도 뜨거웠다.

이에 이날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호남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호남정치 복원 등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 등도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참석 전 환영 나온 교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 여사, 캐나다 장애인예술센터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있는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김 여사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잘 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면서, 양국의 장애 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인인 유정석 관장이 예술센터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표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현장에서 맹인 안내견을 쓰다듬기도 했고, 캐나다의 한 장애인 작가는 캐나다 앨버타주 원주민 인형이 장식된 열쇠고리를 선물로 건네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